

'윤회' 연구단체 활동 눈길

근래들어 전생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윤회'를 학문적·과학적 차원에서 연구하는 단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이들 단체들이 바라보는 윤회는 불교의 시각과는 차이는 있으나 공극적인 목적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일치점을 갖고 있다.

한국을 비롯 세계 1백53개국에 단체를 둔 '신지학(神知學)협회'는 오래전부터 '진화윤회론'에 바탕을 두고 윤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진화윤회론'은 다음 생애에서 현생보다 하등한 형태로 윤회하지 않는다는 것. 이는 인간의 진화를 뜻하며, 이와 함께 문명도 진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민물의 윤회는 진화를 위한 윤회라는 기본 개념을 토대로 신지학협회는 출판사업과 각종 강의를 통해 이같은 자신들의 주장에

학·잠재능력개발 등 4개분과로 나눠 학술대회 및 분과별 세미나 개최, 학회지 및 소식지 발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6백40여명의 회원중 현직 대학교수가 60%를 차지하고 있는 정신과학회는 인사(監死)체험 등의 사례와 각종 연구를 통해 윤회를 과학적으로 증

'육도윤회'라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불교가 업에 의한 윤회를 설하는 반면 이들은 업을 개치지 않는다. 즉 업의 개념의 유무에 의한 차이인 것이다. 반면 이들의 윤회관이 미래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윤회'를 해탈과 상봉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불교의 '윤회관' 모두 보다 나은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그동안 일반에게 막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윤회'를 학문적·과학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객관화하려는 작업

이라는 점에서 향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한국정신과학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석 교수(상명대 중문과)는 "더 나은 세계로 또는 지금보다 더 하위의 세계로도 윤회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적 윤회관이려면, 우리의 윤회관은 우주운동이 나선형적이듯이 윤회를 발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진스님(동국대 교수)은 윤회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종교적·정신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토론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스님은 "불교의 윤회는 업(業)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개인의 의지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불교의 윤회관을 설명하면서 "비록 관점이 다르긴 하나 새로운 이론으로 상호보완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신지학협·정신과학회·미내사등 세미나 통해 과학적 규명 노력

'업보다 진화 비중' 미래지향적 시각

대한 학문적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약칭 미내사)의 모임은 정신과 과학의 합일점을 찾아 밝은 문명을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일반인들이 모여 구성된 단체. 이들 역시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연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적 측면을 배제한 전생과 윤회연구를 통해 정신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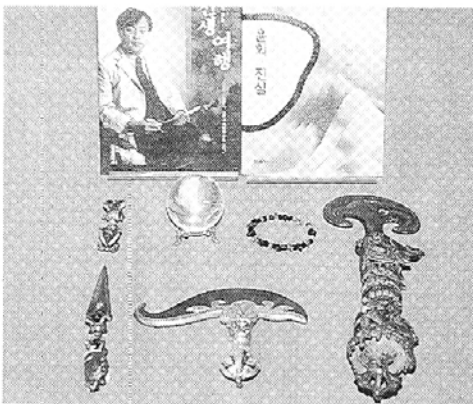
지난 9년 창립된 '한국정신과학회'는 물리·화학·전자공학 등 과학도들이 중심이 돼 윤회와 인간의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학술단체. 전통사상·시공간 기과학·생체 기과

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 역시 윤회는 진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과학적 입장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컴퓨터통신에서는 1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정신과학동호회가 윤회와 전생 등에 대한 의사교환과 개인적 탐구에 문을 열어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천리안 go fi, 하이텔 go fi, 나우누리 go fi).

물론 이들 불교간의 '윤회관'은 '진화론적 윤회'와

◇'진화윤회론'을 주장하는 윤회를 학문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다(사진은 수정구서적 등 요즘 잘나가고 있는 전생관련 용품).



美·가서도 큰 관심

전생·내생·환생 등의 주제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지난 93년 '죽음, 심판 그리고 내생'이라는 미국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7%가 내생을 믿고, 25%가 환생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인이 '사자(死者)의 서'(총2권)라는 비디오에 보인 죽은 관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자의 서'는 티벳불교의 외경인 '발도 토드롤(Bardo Thodrol)'을 기초로 캐나다 국립영화제작소와 NHK(일본)가 제작하고 레너드 코헨(광아티스트, 미국)이 내레이터를 담당한 영상물. 또 삼탈라선(미국) 5월호에는 '사후에 생기는 일'이라는 기획을 마련해 콜롬비아대학 종교학회 로버트 투르만 회장의 의견을 실었다. 여기에서 투르만씨는 "불교·힌두교·기독교는 전생·내생·환생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힌두교·기독교는 영혼의 정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불교는 영혼의 변화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생·환생·사자의 서 비디오 인기

인터넷서도 열풍

인터넷에서도 '환생'에 대한 관심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다넷'(http://www2.hawkesbury.uws.edu/BuddhaNet/)에서는 '환생에 관한 의문점'이란 메뉴를 만들고, 다윈·스트롤버그(스웨덴) 등이 각각 '진화와 윤리' '기억의 불멸이론' 등의 연구서를 통해 "인간은 죽지만 그 영혼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두 과학자들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의 신화와 상징' 부다넷·베단타센타 등 환생 홈페이지 개설

(http://www.bdt.com/home/budryerson/)에서는 '환생의 수레바퀴'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생명의 죽음은 크리타·트래타·드비파라·카리라는 각기 분리된 원 속에서 환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베단타센타(http://www.sivananda.org/yogalife/)에서는 시바난다(요가수행승, 인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환생과 윤회' '윤회의 법칙' 등에 관한 글을 등재하고 있다. (속)

전생관련용품 '불티'

수정반지·목걸이·금강저 구입 붐

최근 '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생관련 용품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들 전생용품들이 출시된 것은 오래됐지만 최근 사회 전반에 전생에 대한 붐이 일면서 그 인기를 발휘하고 있는 것.

이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것은 수정제품. 수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생과 통하는 채널로 사용돼 왔고 자신의 전생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인해 전생투사용 용품이 아니라도 수정팔찌, 수정목걸이, 수정반지, 불수정구, 수정으로 만든 파라리 등 각종 수정제품도 인기가 높다. 이밖에 명상을 돕는 티벳용 '간타', 2개의 종이 부딪는 소리를 내는 '뎅샤', '차입', 금강저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붐에 대해 종교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교수)은 "전생관련 용품을 찾기보다는 부처님의 근본사상인 윤회관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근)



日 인도학 불교학회 국제학술회

한국·중국·일본·미국 등 10여개국 2백50여 스님·학자들이 모여 지난 5~6일 일본 입정대(立正大)에서 개최된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주최 제47회 국제학술회의는 동국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측 발제자들이 한국불교를 자세 히 소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선관이며, 이는 범부위주의 정토교학이라고 주장했다. 정관법이란 정토교를 내고 그 소리에 따라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산란심관은 정관법에 의한 수행법. 현각스님은 삼국유사 제5권 광덕 임금의 설화 즉 발제자들이 한국불교를 자세 히 소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염불인유경〉은 근세에 보즈스님의 이름이 가탁된 것이며, 근세에 만들어진 〈천수경〉은 한국적인 불교 신앙의 풍토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대중경전의 형태로 발전했을뿐, 현존본은 편찬된지 1백여년 밖에 안된 위경이라고 설명했다.

계한스님(불교학과)은 '보각국존 일연의 불교관'에서 일연스님은 불교의 여러 신앙을 고루 섭렵

한국 불교사상 집중 소개

보광스님 천수경 한국풍토 맞게 쓴 '위경' 원효 범부들에 산란심관 지도

계한스님 일연스님 통불교신앙과 상통

었다.

보광스님(동대 정각원장)은 '한국 선원생활의 연구'에서 한국의 선(禪)은 사조도신(四祖道信) 이후 해능계(系)의 남종선과 오종가풍(五宗家風)이 모두 전래돼 한국선의 특색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선이 화두를 참구한다고 해 임제종풍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조계종이란 '육조해능계(系)의 선종'이라는 의미이나 오종선가(五宗家)의 어느 곳에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각스님(선학과)은 '원효의 정관법(正觀法)' 주제발표에서 원효스님의 수행관은 산란심중의 염불

집게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보광스님(선학과)은 '한반도에서 제작된 의위경(疑偽經·佛說이란 이름을 빌려 후대에 만든 경전)에 대하여'에서 신라시대의 〈금강삼매경〉, 고려시대의 〈현행서방경〉, 조선시대의 〈염불인유경〉, 최근세의 〈천수경〉 등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의위경이라고 주장했다.

보광스님은 먼저 〈금강삼매경〉은 대안스님이 찬술한 것이며, 〈현행서방경〉은 정토신앙의 방법을 도입해 만든 위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님 저서중 현존하는 '삼국유사'와 '종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의 내용을 예로 든 스님은 원효스님이 이를 설화를 통해 불교적 신앙심을 고취시키려 했으며, 여기에 는 화엄·관음·정토·미륵·불국토신앙 등이 고루 묘사돼 있다는 설명이다.

홍윤식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는 '한국사원의 구조적 특징과 그 문화'에서 한국의 사찰구조와 일본의 사찰구조를 사상적 측면에서 조명했다. (우)

중서 반입 北미특반가상 진위 논란

삼국시대 작품 추정 어려워... 정밀감정 필요

지난 6월 북한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사진)이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최근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반가상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높이 16.2cm의 이 반가상은 김정웅씨(한국미술경매 대표)가 중국을 거쳐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북한에서 공사도중 우연히 발견돼 중개인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 반입되면서 관계전문가들의 정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문명대교수(동국대)는 "사진으로 봤을 때 우뚝, 얼굴 모습, 목선 등이 삼국시대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확실한 것은 과학적 분석이 이뤄져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윤식교수(동국대)도 "과거 우리나라에 반입된 북한 문화재중 진품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며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범종사보고서' 10월 출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오는 10월 말 한국범종에 관한 방대한 연구 보고서를인 〈한국범종사보고서〉(가 포함해 제원과 양식, 형태상의 특징)를 출간한다.

이 보고서는 신라~조선시대에 걸쳐 국내범종 및 본소장 신라 범종에 대한 기초자료조사와 그동안의 단편적인 연구성과를 함께 집대성한 학계 최초의 개설서다.

25년연구 집대성... 학계 첫 개론서

보고서는 모두 178구에 달하는 한국범종에 대한 다양한 학술을 포함해 제원과 양식, 형태상의 특징, 신라~조선 178구 조사, 사진·참고문헌 총실 징과 변천사를 담고 있다. 국배판 45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특히 140여점의 사진도판과

수백여점에 달하는 참고문헌이 함께 수록돼 범종연구의 기초자료로 손색이 없도록 꾸며져 있다.

기초조사는 이호관씨(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와 조유진씨(국립민속박물관)가 문화재연구소 재직시절인 71년부터 74년까지 4년여간 현지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이호관씨가 20여년동안 모은 연구자료를 더해 보고서를 펴내게 됐다.

신개발품

전통사찰 지붕의 美를 되살린 가람 銅기와

무거운 흙기와에서 천년가람을 가람동기와가 보호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불철주야 불음을 전하시는 스님들께 합장 향배 올립니다. 금번 가람 동기와에서는 다년간의 기술개발로 품격을 향상시키고 전통사찰지붕의 미를 되살린 가람 동기와 신개발품을 생산하여 시공 A/S를 책임지고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사부대중제위의 관심있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40년 가람동기와 대표 이주영 합장

가람동기와의 장점과 특징

1. 반영구적인 기와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동파로 인한 기와의 손상이 전혀없이 지붕의 변형 누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완벽한 방수가 가능합니다. 암기와 솟기와는 비 바람 물의 역류를 막을수 있게 설계제작되어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건물의 목재를 보호합니다.
3.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30장씩 BOX로 포장되어 운반, 보관의 편리성은 기본이고 **평당 중량이 45kg으로 (흙기와 680kg, 청기와 550kg) 가람의 변형을 막을수 있습니다.**
4. 동기와의 색상변화. 동기와는 다른 금속에서 볼수 없는 특유의 색상변화를 일으켜 최초의 적동색에서 갈색→암갈색→올갈색→녹청색으로 변하여 고색창연한 멋을 더해줍니다.
5. 시공이 간편합니다. 완전 조립시공으로 인한 시공의 간편함으로 인한 불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줍니다.

가람동기와 설계, 제작, 시공단계

동기와 제작 → 시공설계 → 직접시공 → 시공 감리 → 하자보수 및 10년간 A/S

가람동기와에서는 전부분 공정을 본사가 직접 책임을 다하므로 불필요한 사항을 감소합니다.

동기와 불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 720-5121 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서울 중로구 견지동 114-40 청송B/D 202호 가람동기와 02)720-5121